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4. 18.(목) 01:00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를 확인

- 한·미·일 3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7.(수)(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첫 번째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이행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은 오늘 재무장관들이 논의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동선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소희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권용준 (kwon54yj@korea.kr)

**Japan-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Trilateral Ministerial Joint Press Statement**

Today, we, the Finance Ministers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eld our first trilateral meeting in Washington, DC. Our discussion builds on our Trilateral Leaders' Summit last August in Camp David, and affirms the importance of our relationship to our own economies and to the global economy.

As leading global economies, we seek continued opportunity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s,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globe through open and fair economic practices.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inancial stability, as well as orderly and well-functioning financial markets. We will also continue to consult closely on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in line with our existing G20 commitments, while acknowledging serious concern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bout the recent sharp de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and the Korean won.

Together, we affirm our commitment to utilize and coordinate our respective sanctions tools to impose costs on Russia for its war against Ukraine and targe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DPRK's) weapons program.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exports to Russia, as well as Russia's procurement of the DPRK's ballistic missiles, in direct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all upon them to immediately cease such activities.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to overcome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and the possible harm to our economies from non-market economic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economic coercion and overcapacity in key sectors. We have reaffirmed Leaders' commitment to mobilize financing for resilient supply chains and will work together to that end, including through the Partnership for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RISE).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evolve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nd strengthen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better respond to key global challenges.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ASEAN and Pacific Island countries, we will combin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macroeconomic and financial resilience as well as financial integrity. We welcome the progress in the trilateral collaboration among our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We will continue staff level engagement to take these forward.

These goals demonstrate the ongoing importance and unprecedented strength of this tr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will continue cooperation to strengthen our economies and promote global economic prosperity.

※ 본 번역본은 보도 편의를 위해 번역한 비공식 자료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일 3국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오늘 우리 한국, 일본, 미국 재무장관들은 워싱턴 DC에서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의 논의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하며, 3국 경제와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3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선도적인 글로벌 국가로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가치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였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금융 기관 간 3국 협력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과 전례 없는 우호 관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3국 경제와 세계 경제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 엘런 재무장관님, 스즈키 재무대신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천명하였으며,
 - 우리 국민만이 아닌 인도 - 태평양 지역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진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또한, 3국 간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신설·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오늘 첫 번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습니다.
 - 또한,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되었으나,
팬데믹과 지정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 오늘, 두 분 재무장관님과 함께,
이러한 도전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 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번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 장관급 회의는 물론,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되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또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협력이 G7 등 국제협력 체제에서도 이어지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들의 지속적인 소통은 새로운 기회의 발굴과 적극적 위기관리로 이어져 더 크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